

유통 화장품 중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모니터링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, 최근 화장품 중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유통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

II 연구개요

- 기간 : 2020년 1월 ~ 2020년 12월(1년)
- 대상 : 부산지역 유통 화장품(바디미스트, 로션, 향수 등) 50건
- 항목 : 하이드록시이소헥실 3-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히드(HICC), 벤질알코올

III 연구결과

- 유통 화장품의 HICC 분석결과, 전체 50건 중 2건(4.0%)에서 HICC가 검출되었다. 제품 분류별 검출 결과 바디미스트 10건 중 2건(20.0%)에서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제품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.
- HICC가 검출된 시료를 정량 분석한 결과, 0.0022 ~ 0.0081%의 농도로 나타났으며,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, 배합금지물질로 지정되어있으나 해당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고시시행일(2019.10.01.)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당수의 제품에서 불검출,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함유량을 나타내었다.
- 유통 화장품의 벤질알코올 분석결과, 전체 50건 중 11건(22.0%)에서 벤질알코올이 검출되었다. 제품 분류별 검출 결과 향수 10건 중 6건(60.0%), 바디워시·로션 10건 중 2건(20.0%), 바디미스트 10건 중 1건(10.0%), 샴푸·컨디셔너 10건 중 1건(10.0%), 기초화장품 10건 중 1건(10.0%)으로 나타났다. 생산지 분류에 따라 국내생산 제품 26건 중 3건(11.5%)에서 검출되었으며, 수입제품 24건 중 8건(33.3%)에서 검출되었다.
- 벤질알코올 함유 제품의 정량분석결과, 농도 0.0038 ~ 0.6270% 수준으로 나타났다. 제품분류별 벤질알코올 함량은 향수에서 0.0100 ~ 0.0863%, 바디워시·로션에서 0.0038 ~ 0.0061%, 바디미스트에서 0.0434%, 샴푸·컨디셔너에서 0.0069%, 기초화장품에서 0.6270%로 나타났다. 생산지 분류에 따른 벤질알코올 농도는 국내제조 제품에서 0.0061 ~ 0.0104%, 수입제품에서 0.0038 ~ 0.6270%로 나타났다. 모니터링 결과 총 50건 중 11건에서 기준 이하(기준 1.0%)로 검출되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IV 정책연계방안

- 새로 시행되는 화장품 안전관리기준(배합금지물질)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재·표시 의무화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
V 활용계획

-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검출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알권리를 충족시켜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